



송영방교수의 '문수보살 금강산 현시도'. 문수보살이 흰 사자를 타고 권속들과 함께 금강산에서 중생계를 내려오고 있다.

민족통일 염원담은 '문수보살 금강산 현시도'

송영방교수, 한지위에 수묵담채로 그려

여로부터 부처님의 산으로 여겨져 온 금강산. 고려말 금강산을 오른 한 중국 사신은 "여기가 참으로 부처님이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죽어 조선 사람이 되어 길이 부처님의 세계를 구경하는 것이 소원이이다" 하고 찬탄할 정도였다. 시공을 초월한 민족의 영산으로 오랫동안 한민족의 정신적 의지처가 되었던 금강산을 배경으로 현대와 전통을 절묘하게 접목시킨 새로운 모습의 불화가 탄생했다.

500호(4×3m) 대작

한국화의 대가로 알려진 동국대 송영방교수(예술대 학장)가 '문수보살(보현보살) 금강산 현시도'를 최근 완성한 것이다. 이 두 점의 작품은 희망찬 새 천년에 중생을 제도하는 문수와 보현보살이 금강산을 통해 내려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민족의 화해를 이루고, 민족통일과 불국정토를 이뤄 내는 염원을 담았다.

500호(전체 4×3미터)의 대작인 이 작품의 특징은 청(靑), 황(黃), 적(赤), 백(白), 흑(黑) 5색으로 공간을 일일이 다 메우는 기존 전통불화의 방식에서 벗어나 특수 제작된 한지 위에

한국화의 수묵담채법으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또 문수와 보현보살의 뒤로 보이는 금강산은 비로봉에서부터 해금강에 이르는 수려한 금강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한눈에 금강산의 아름다움에 빠져들게 한다. 그 속에는 내금강의 홍교 위로 무지개가 걸리고, 고려 태조가 세웠다는 정랑사와 유서깊은 장안사도 있으며, 저 멀리 해금강과 그 언덕 위 고즈넉한 정자도 보인다. 이 그림은 고려시대 노영의 '담무갈보살예배도(曇無竭菩薩禮拜圖)' 이후 금강산을 배경으로 한 최초의 현대불화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같은 금강산에서 구름 속을 헤치며 권속을 이끌고 중생계를 내려오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모습은 정경화된 불화의 보살상이 아니라, 현대 한국인의 모습을 담은 보살상으로 실제 인체비례로 생동감 있고 친근하게 묘사했다. 이 작품에는 문수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실천행을 본받아 오늘날 우리 민족이 직면해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백두대간으로 형성된 강인한 한민족의 정신을 이어나가자는



송영방 교수

서원이 어려웠다. 송교수는 한국 회화의 방식으로 구현한 이 작품을 통해 맹목적인 서구화 세계화로 있고 있는, 우리 것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재인식 하자는 의도도 담았다. 아무리 서구의 미술양식이 보편화되었다 하더라도 한국 미술은 한국적 미의식과 사유체계 속에서 발전한다는 진리를 작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송교수는 "한 평생 작품세계를 열어 주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보은하는 마음으로 작품을 만들었다"면서 "잃어버린 우리 문화의 전통을 오늘에 되살리는 일이 바로 민족 정신을 고양하고, 통일을 앞당기는 초석"이라고 말했다.

동국대 대각전에 걸려

전통의 재창조를 통해 불교회화의 새로운 세계와 지평을 열어보인 대작으로 평가 받고 있는 '문수보살(보현보살) 금강산 현시도'는 현재 동국대 대각전 입구 양 벽에서 부처님을 찾는 불자들을 맞고 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禪舞 '색즉시공 2000'

이선옥교수, 16·17일 동송아트센터

선무(禪舞)의 창시자 이선옥교수(상명대 무용과)의 화두는 '춤과 명상'이다. 강렬한 듯 절제된 몸짓으로 풀어내는 그의 춤 세계는 보는 이로 하여금 조급은 색다르고 특별한 감흥을 일으킨다. 그런 그가 2000년을 맞아 또 한번의 춤판을 벌인다.

'선무가색즉시공(色卽是空) 2000' 발표회가 16, 17일 오후 7시 30분 서울 대학로 동송아트센터에서 열린다.

불교의 선(禪)사상을 바탕으로 현대무용과 선무기법을 도입해 새롭게 선보이는 이번 발표회는 연발과 판소리, 재즈의 3개 분야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해, 이교수의 독특한 선무의 세계를 보여줄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발표회에서 이교수는 선무와 충청도 '앉은 곳'의 결합을 시도한다. 귀신을 쫓기 위한 경문인 '살위살진'을 선무의 배경이 되는 종이 장치를 만들어

공중에서 무대 위로 내려오게 하는 등 시각적인 효과에도 신경을 썼다.

이교수는 "이번 작품은 선무를 통해 몸과 마음을 비워 무심(無心)의 상태에서 진공묘유(眞空妙有)의 대자유를 표현하고자 했다"면서 "새 천년을 맞이하여 유주무주 애혼들을 천도해 극락왕생을 염원하고, 관객과 춤추는 이로 하여금 모든 액과 재난을 소멸시켜 마음의 평정과 시각적 아름다움을 느끼게끔 시도했다"고 작품 의도를 밝혔다.

고 김백초, 이매방, 김천홍 선생으로부터 무용을 배운 이교수는 미국 유학 4년째인 72년 카네기홀 공연으로 뉴욕 무용계에 데뷔했으며, 74년 '선 무용단'을 설립했다. 지금까지 20여 차례의 주요 공연을 통해 미국, 캐나다, 프랑스, 홍콩 등지의 무대에서 선무를 선보였다. (02)737-4045

이은자 기자



이선옥 교수는 '색즉시공 2000' 선무를 통해 마음의 평정과 재난의 소멸을 기원한다.

부다팝스 불교음악 새장르 보컬 '도리도리' 음반

'부다팝스(Buddha Pops)'라는 새로운 불교 음악 장르가 등장했다. 불교보컬그룹 '도리도리(道理道理)'가 '생자필멸 회자정리' '운회' 등 불교교리에 선(禪)적인 멜로디를 가미한 음반을 출시하며 본격적인 불음포교 활동에 나섰다. 도의 이치를 말한다든 그름 이름처럼 불교적 색채가 짙은 '도리도리'의 이번 음반에는 테크노음악에 선적인 멜로디를 가미한 'I'm Buddha', 생로병사와 회로악락을 느끼며 살아가는 중생들의 내면세계를 댄스리듬과 접목시킨 '눈물', 불교의 5계를 담은 '5계' 등 13곡이 담겨 있다.

'도리도리'의 구성원은 치어리더 출신의 리드보컬 안전미(20)와 용인대 무용과에 재학중인 객원보컬 강주선(19), 이들은 가수출신의 음반제작자인 심명훈씨(사운드엔터프라이즈 대표)의 눈에 띄어 가수로 발탁돼 '도리도리'를 결성하고 이번 앨범을 준비해온 것. 10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일명스님(조계종 교육원장)을 계사로



부다팝스 음악을 선보인 보컬 '도리도리'가 1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일명스님을 계사로 5계를 수지했다.

수계식을 가진 그룹 '도리도리'는 또 다음주부터는 TV 출연 의에도 전국 사찰의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등 포교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고려불화 재창현전

혜담스님, 24~30일 백상기념관

정교하고, 화려한 고려불화의 아름다움을 오늘에 되살리는 혜담스님의 '고려불화 재창현전'이 24일~30일 서울 백상기념관에서 열린다.

혜담스님(수원 계대사 주지)은 20여년간 고려불화를 연구하며 불화의 성스러움을 재현해 왔다. 이번 전시에는 고려 당시 성행했던 미륵신앙을 보여주는 '미륵하생경 변상도', 고려불화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수월관음도 입상', '지장 삼존도' 등 30여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철저한 문헌고증과 참선수행을 병행하며, 하루 10시간 이상 작업을 진행해 왔다"는 스님은 "앞으로 고려불화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최근 인터넷 상에 홈페이지(www.hyedam.or.kr)도 개설해 고려불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 (0331)291-2928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대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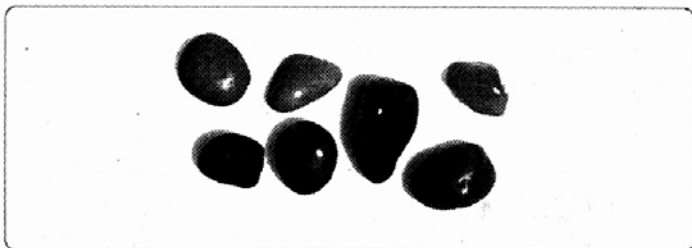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는 신축개관 1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과 함께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대법회를 개최합니다.

신라 대국통(大國統)이자 통도사 창건주인사리 자장율사께서 중국 당나라에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를

1,400여 년만에 처음으로 친견할 수 있는 기회이자 금생(今生)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처음으로 공개되는 경주 감은사탑 사리구를 비롯한 전국 50여 기의 불탑에서 출현한 국보·보물

사리장엄구들이 함께 공개되오니 모든 불자들이 동참하시어 업장소멸과 구경성불의 선근을 닦으시기 바랍니다.



1,400여 년 전 자장율사께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

영축총림통도사주지 薪虛
통도사성보박물관장 梵河 합장

◆ 법회일정안내 ◆

사리 이운식

- 일 시 : 2000년 5월 27일 12시 (관음재일)
- 장 소 : 통도사 부도전 및 성보박물관 입구

사리 친견법회

- 일 시 : 2000년 6월 2일(5월 초하루)부터 2000년 7월 30일까지
- 장 소 : 통도사성보박물관 중앙홀

법회안내

- 박물관 / 전화 0523) 382-1001
- 팩스 0523) 384-0030
- 종무소 / 전화 0523) 382-7182

※사리 친견은 매일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